회원도서관탐방

학생들의 오아시스

경복고등학교도서관

역사와 전통의 경복고등학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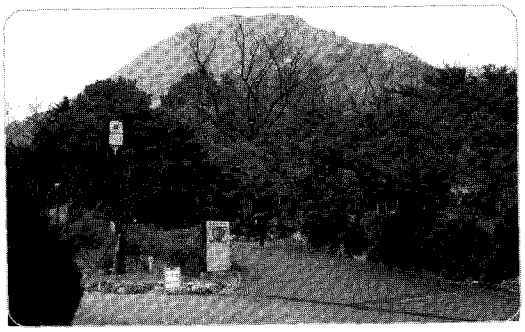
경복고등학교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1921년 제2경성보통고등학교로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있다. 경복고등학교의 도서관은 1958년 처음 개관한 이후, 1992년 1월 경복관(도서관, 과학관)의 개축 준공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일반 고등학교라고 하기에는 드넓은 교정이며 사계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이는 곳으로 도서관은 북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교문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운동장과 접하고 있으며, 1층에 위치해 있어서 넓은 교정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찾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2004년에 경복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되었고, 현재 1층에는 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 예체능부실이, 2층에는 컴퓨터실과 기술실, 스터디룸이, 3층에는 일반열람실(활달실, 지성실, 강건실, 협동실)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아 11월에 마무리한 도서관은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리모델링 되었다. 리모델링 된 도서관은 최신성과 질적수준도 높은 2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자랑하고 시설과 공간 등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교사와 학생들 모두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고 한다.

▲ 경복고등학교도서관(경복관)



▲ 정문에서 바라 본 북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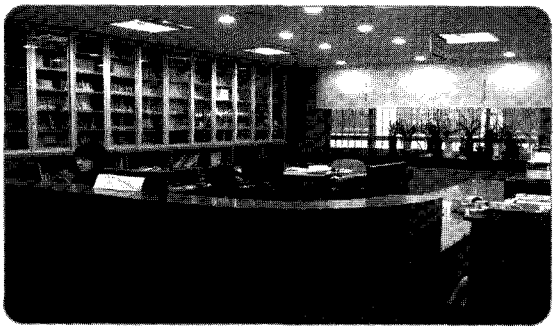
도서관의 규모는 작지만, 적절한 배치와 관리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각종 자료를 검색·활용하여 과제를 하기도 하며, 영화와 음악도 즐길 수 있는 학교에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었다.

멀티미디어센터로서의 공간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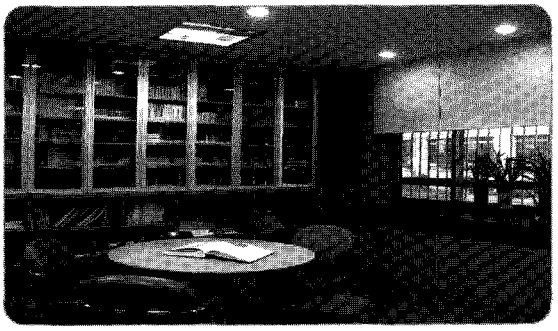
총 346㎡(교실 5칸)의 경복도서관미디어센터는 일반도서(2만여권의 장서와 32석의 열람석)와 연속간행물(정기간행물, 신문 등 총 44종) 및 참고도서(사전, 연감, 도감 등 450권), 전자 · 음향자료(컴퓨터 6대, 오디오), 영상자료(소그룹으로 DVD와 비디오테이프를 감상할 수 있는 2곳), 비도서(비디오테이프, DVD, 카세트테이프, CD) 공간과 대출반납대(참고봉사) 및 소장자료 검색(2대의 소장자료 검색 전용 컴퓨터) 공간, 사서교사 · 교사 연구 및 자료활용 수업(36석의 열람대와 LCD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전자칠판, 이동식 칠판 등이 설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도서 서가

▲ 참고도서 서가



▲ 대출반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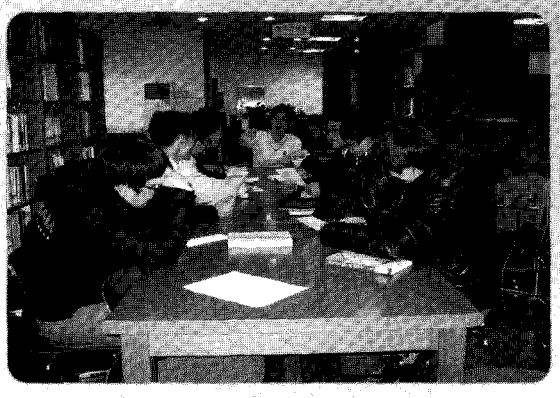


▲ 사서교사 · 교사 연구 공간

참여하는 프로그램

경복고등학교도서관의 자랑은 현재 4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한 1학년 주당 1시간씩의 독서시간이다. 독서시간에는 자유롭게 독서를 하고 '나의 독서록'을 이용해 독후감을 작성하고 있다. 독서록은 2,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록을 다 쓴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독서록을 더 받아갈 수 있다. 학년말에 시상하는 전학년 반별 우수독서록 및 다독우수자는 이 독서록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1년 동안 도서관에서 독서활동을 한 학생들은 2, 3학년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 교내토론대회



▲ 사제동행 독서토론

소그룹활동으로는 책누리부 학생들과 함께 '2010년 사제동행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기적 유전자』, 『무소유』, 『체게바라평전』, 『교양으로 읽는 법이야기』 등 매달 한 권 정도의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12월 기말시험이 끝나면 독서퀴즈대회를 실시한다고 한다. 5년째 계속되고 있는 독서퀴즈대회는 교과선생님들에게 추천받은 교과별 추천도서 10권을 대상으로 학년 초에 공고하고 학년 말에 실시하여 학생들이 1년 동안 최소한 10권의 책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정선 사서교사는 또 하나의 자랑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동호회 '차세기(차와 세상읽기)'를 통해 2년째 매달 도서관에서 독서토론을 소개했다. 역사과 선생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동호회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자기성찰과 시대인식을 통해 학생지도 및 사회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

2011년도에는 독서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 독서프로그램 혹은 흥미별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서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필수요소

박정선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설과 자료, 사서교사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좀 더 세부적인 활동(자료선정, 조직, 관리, 이용자 관리, 이용자 교육,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 교과학습을 돕기 위한 활동, 진로, 진학, 학생들의 고민, 생활지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자료 등이 축소되었을 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숙지하고 있지만, 사서교사 혼자의 힘으로 모두 해나가기가 너무 벅차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안타까움에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탐방 말미에 박정선 사서교사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수단에서 신부로서, 의사로서 활동하시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학교를 짓고, 학생들에게 브라스밴드를 조직해 음악을 통해 기쁨을 알게 해주던 이태석 신부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뒤 그곳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먼지로 뒤덮여진 학교, 휘장이 덮여진 악기들과 의료기기들. 슬픔에 잠겨있는 아이들의 모습... 어쩌면 학교도서관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는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없는 도서관도 동일하지 않을까...

지금의 학교도서관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력은 전혀 배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 이미 리모델링을 실시한 학교도서관들의 시설과 자료들이 벌써 노후되고 있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도서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최소한 사서교사 한 명씩은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해마다 교생실습을 거쳐간 그 많은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던 희망이 한갓 허망한 꿈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필자가 재학 중이던 시절 고등학교도서관은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이었다. 지금 경복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도서관이 있었다면, 많은 것에 지식에 대한 갈증해소와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경복고등학교도서관과 같은 학교도서관이 많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쉬움이다.

학생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경복고등학교도서관이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란다.

■글 · 사진 : 손주연 회원정보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강2길 11
전화 : 02-737-4471~4
팩스 : 02-736-0422
홈페이지 : http://www.kyungbock.hs.kr